

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 | | | |
|--------|----------|----------|-----------|
| 제1차 시험 | 2 교시 전공A | 14문항 40점 | 시험 시간 90분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입형 [1 ~ 10]

1. 다음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 | |
|--------|-----------------------------------------------------------------------------------|-----------------------------------------------------------------------------------------------------------------------------------------------------------------------------------------------------------------------------------|
| | 학습 목표 :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할 수 있다. | |
| 도 입 | ○ 동기 유발 공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가), (나) 발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이야기해보자. | (가)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가 반장이니까 발표 준비를 해라. ----- (나)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가 발표를 좀 맡아 주면 어떨까? |
| 전 개 | ○ 사례 분석 (다)의 대화 상황에서 학생의 발화는 교사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다) 학생: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사: 뭐? 이해가 안 된다고? 1) 이 대화에서 학생 발화의 목적은 (㉠)이다. 2) 학생의 말이 공손하지 않고, 교사를 존중·배려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 때문이다. 3)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 | ○ 적용 활동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자. |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생긴 사례를 찾아서 공손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
| 정 리 | ○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

2. 다음은 올바른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세 명의 중학생에 대한 김 교사의 기록이다. 김 교사는 '독자 정보'에 근거하여, 개별 독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지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기>의 지시에 따라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독자 정보 | | | |
|--------------------------------------------------------------------------------------------------------------------------------------------------------------------------------------------------------------------------|----------|----|----|
| 항 목 | <독자별 수준> | | |
| | 유나 | 선하 | 수빈 |
| 음독 유창성 | 중 | 상 | 상 |
| 기초 독해 능력 | 하 | 상 | 상 |
| 독서 전략 습득과 활용 | 하 | 상 | 상 |
| 독서의 가치 인식 | 중 | 상 | 중 |
| 독서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 하 | 하 | 상 |
|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 | 중 | 상 | 중 |
| 자유 독서의 빈도 | 하 | 하 | 하 |
| 자유 독서를 위해 선택한 도서의 난도 | 중 | 하 | 하 |
| 독서 반응의 사회적 공유 | 하 | 하 | 상 |
| <독자별 특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나: 자유 독서 상황에서 읽기 시도와 실패(중도 포기)가 반복됨. ▶ 선하: 독서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고, 교사나 동료의 평가에 민감함. ▶ 수빈: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쉬운 책을 골라 빨리 읽는 경우가 많음. 모둠 활동을 좋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 | |

| 지도 계획 | | |
|-------|-----------|----------------------------|
| | 독서 문제 진단 | 독서 지도 계획 |
| 유나 | 읽기 부진 | 적정 난도의 도서를 활용해서 기초 독해력 증진 |
| 선하 | 독서 효능감 부족 |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서 독서 효능감을 높임. |
| 수빈 | ㉠ | ㉡ |

—<보 기>—

1. ㉠은 독자의 정의적 요인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쓸 것.
2. ㉡은 '유나'와 '선하'에 대한 지도 계획을 참고하여 제시하되, '독자별 특성'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

3. 다음은 한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적은 글이다. 학생의 글을 읽고, 교사의 지도 방향을 적은 <보기>의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나는 내 글쓰기 능력에 대해 판단을 하기 힘들다. 학교에서 내주는 많은 글쓰기 과제에서 어떤 때는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받다가도, 다른 때는 또 글을 잘 못 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지난달에 자서전 쓰기를 했을 때 국어 선생님께서는 내 글에 대해 자서전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기록과 성찰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해 주셨다. 또 글의 구성과 표현 방법이 자서전에 잘 맞는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서 쓰기 과제를 제출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선생님께 그 이유를 여쭙어 보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고 하셨다. 또 내가 사용한 문장은 비유적 표현이 많아서 보고서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도 듣게 되었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내 글쓰기 능력이 괜찮은 편인지, 부족한 편인지 잘 모르겠다.

<보 기>
이 학생의 문제는 ()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학생은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있지만 ()에 따라 달라지는 텍스트의 규범적 형식과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즉 자서전 쓰기에서는 텍스트의 규범에 맞춰 쓰기를 수행하였지만, 보고서 쓰기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비유와 같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 중심의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

4. 다음 발음을 참고하여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1) 숙면[송면], 밥물[밤물], 득녀[등녀], 잠냄[잠냄]
- (2) 한결[항결], 탐구[탕구], 순방[슌방], 합격[학격]
- (3) 굳이[구지], 같이[가치], 밭이[바치], 콩밭이다[콩바치다]

<보 기>
(1)~(3)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공통적으로 동화 현상에 속한다. 그러나 (1)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이/가 바뀐다는 점에서 (2)에 적용된 음운 변동과 다르다. 또한 (3)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 동화주인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가 (㉡) (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5. 다음은 중세 국어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의문문의 종류가 형태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의 의문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예도 확인된다.

(1) ㉠. 어루 이괴여 기리스불려
 ㉡. 精舍ㅣ 업거니 어드리 가료

(2) ㉠. 여섯 하느리 어늬사 못 도흐니잇가
 ㉡. 사로미 이러커늘사 아들을 여희리잇가

- (1)에서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의문형 어미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과 달리, (2)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 (2)의 두 문장 중 하나에서 의문사 (㉠)이/가 확인되는데, 의문사 유무에 따른 형태상 차이가 있었다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형 어미는 (㉡) (으)로 나타났어야 한다.

6. 다음을 참고하여 부정문의 부정 영역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1) ㉠. 다행히 동생은 집에 가지 않았다.
 ㉡. 동생은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
 (2) ㉠.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책을 못 읽게 했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책을 못 읽혔다.

<보 기>

- 부정문의 의미는 부정의 영역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 (1)은 장형 부정 형식의 ‘안’ 부정문으로, 의미상 (1㉠)에서 ‘다행히’는 (1㉡)의 ‘일찍’과 달리, 부정의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다행히’가 ‘일찍’과 달리 (㉠)이기 때문이다.
- (2)는 단형 부정 형식의 ‘못’ 부정문으로, (2㉠)에서 ‘못’은 (2㉡)에서와 달리, (㉡)을/를 부정하고 있다.

7. 다음은 “작가가 처한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하는 수업의 자료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로 님 위한 탓이로세
 아매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여 보소서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슴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 을 좇아 그칠 뉘를 모르나다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나)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삼 그만 하오
 말삼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쇠
 인년인들 한가지며 니별인들 갓탈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피셔 즐기더니
 니래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업살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난 줄 설위마소
 엇더타 니 내 몸이 격홀 대 전혀 업내
 광한전 어대 머오 백옥경 내 아던가
 원앙침 비취금의 피셔본 적 바히 업내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로 님 길고
 질삼을 모라거니 가무야 더 니랄가

... (중략) ...

산호 지게 백옥함의 님 옷도 잇내 마난
 뉘려셔 가져가며 가져간들 보실손가
 내 하인 뉘라 하고 무산 말노 보내올고
 스사로 면괴하니 남이 엇디 니루려니
 누어도 생각이오 안자도 생각이라
 아마도 이 생각은 일각을 못 이즐쇠
 치운 밤 더운 낮과 죽도반 조석 딘디
 님의 소식 듯자 하니 뉘려셔 전할손가

-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보 기>

| 교수·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작가가 처한 상황 이해하기 | 윤선도와 김춘택의 전기적 사실을 조사하여 이 작품이 유배지에 있을 때 창작되었다는 점을 발표한다. |
| 작품의 표현 의도 파악하기 | 표현 의도가 잘 드러나는 시어 및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가)의 ‘님 향한 내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충심(忠心)과 연정(戀情), (㉠)을/를 알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의 ‘나’는 ‘각시’처럼 임의 총애(寵愛)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자신도 (㉡)을/를 마련할 정도로 임에 대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
| 작품의 창작 동기 추론하기 | 작가가 처한 상황과 표현 의도를 바탕으로 창작 동기를 추론하는 모둠별 토의를 한다. |


8. 다음은 역할극 활동에 활용한 작품과 학생의 역할극 대본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죽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귀 먹어서 삼년이요 눈 어두워 삼년이요
 말 못해서 삼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은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벼개머리 소(沼)이졌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쌍 오리 한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 『시집살이 노래』

(나)
 급히급히 돌아와서 사립 안에 들어서며, 아비 불러 하는 말이, “날은 춥고 방은 찬데 고픈 배 틀어 쥐고 오죽 고대(苦待) 하셨겠소.” 심봉사 반겨하고, “애개, 내 딸 너 오느냐. 오죽이 춥겠느냐. 어서 급히 들오너라.” 심청이 손을 붙여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솥에 열른 데워 빌어온 밥 데운 물을 아비 앞에 드리고서 반찬을 가리키며 “많이 많이 잡수시오.” 심봉사 탄식하며 “목구멍이 원수로다. 선녀 같은 이내 딸을 내어놓아 밥을 빌어 이 목숨을 살자느냐. 너의 모친 죽은 혼이 만일 이 일 알았으면 오죽이 싫겠느냐.” 심청이 여짜오되, “빌어 온 밥 이나마 자식의 정성이니 설워 말고 잡수시오.” 좋은 말로 위로하여 기어이 먹게 하니, 날마다 얻어온 밥 한 쪽박에 오색이라 흰밥 콩밥 팥밥이며, 보리 기장 수수밥이 갖가지로 다 있으니, 심봉사집은 끼니때마다 정월 보름 쇠는구나.
 - 『심청가』


학생의 역할극 대본

시집은 지 벌써 십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은 어렵고 시집살이는 힘들어요. 그래도 미련스레 절 챙겨주는 남편만 믿고 삽니다. 서러워 흘린 눈물이 벼개머리에 작은 소(沼)를 이루었네요. 그것도 소라고 벼개맛에 수놓은 새들이 떠다닙니다.



며느리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컸답니다. 제가 앞 못 보시는 아버지보다는 수월히 밥을 빌려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제가 얻어 온 밥을 차마 못 드시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매끼마다 오곡밥을 먹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위로해 드렸 습니다.



심청

<보 기>

교사의 설명

역할극을 할 때에는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며느리’의 대본에서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은 며느리의 처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청’의 대본에서 (㉠) (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심청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작품에 그려진 인물의 삶은 눈물겹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꼭 그런 감정만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애감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 때문이지요. (㉡)은/는 서럽고 슬픈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전통적인 삶의 지혜와도 관련됩니다.

9. 다음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집필 중인 교과서의 일부이다. 목표 활동 구안을 위한 집필자들의 토의 과정에서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산유화(山有花)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목표 활동


활동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운율이 갖는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_____


(2) _____

활동 2. _____

<보 기>

 집필자 A
활동 1의 세부 활동 (1)로는 끊어읽기를 통해 음보울을 파악하는 활동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집필자 B
그러면 세부 활동 (2)에서는 음보울과 시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령 ‘산에/산에’ 같은 표현은 (㉠)을/를 통해 음보울 실현에 변화를 줌으로써, 대상의 고립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집필자 C
활동 2는 형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는 활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 구조를 통해 완벽한 균제미(均齊美)를 얻고 있어서, 자연의 조화로운 원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0. 다음 작품을 읽고 <보기>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그 오후 다섯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나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외사촌과 나는 병어리가 되어 피브이시에 나사 박는 일에 몰두한다. 우리는 스테레오과 A라인의 1번과 2번이었으므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산이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학교에 가고 없는 동안에도 생산이 끊기지 않도록 3번 자리 옆에 우리의 작업을 마친 피브이시를 오후 다섯시가 되기 전에 충분히 쌓아놓아야 했으므로, 우리는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삼십 분을 일찍 회사에 나온다. 점심만 먹고 곧 돌아와 컨베이어 앞에 앉는다.

[중략 부분 줄거리] 구로 공단에서 일하며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최홍이 선생님으로부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는다.

주산시간에 국어노트 뒷장을 펴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옮겨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기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고.

최홍이 선생이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담담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 신경숙, 『외딴 방』

〈보기〉

문학에서는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 속에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신경숙은 『외딴 방』에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 ㉡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은 ㉠과 달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옮겨 적는 ‘나’의 행위가 함께 제시된다. ‘나’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 같은 인용 방식은 작가가 되기 위해 ‘나’가 소설을 필사하는 행위를 보여 준다는 의미 외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나’와 그것을 필사하는 ‘나’가 중첩되는 효과를 통해 ()을/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서술형 [1~4]

1. 다음은 토론을 하기 전에 한 학생이 논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 1>의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쟁점 3>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5점]

| | | |
|--------------------------------------------------------------------------------------------------|-----------------------------------------------------------------------------------------------------------------|---------------------------------------------------------------------------------------------------|
| 논제 | 성형 수술은 바람직하다. | |
| 논제의 배경 | 요즘 언론에는 연예인들의 성형 수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도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성형 수술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 |
| 입장 | 찬성 측 | 반대 측 |
| 쟁점 분석 | <쟁점 1> 성형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
| | 성형 수술이란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시키는 수술’이다. 이처럼 성형 수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 |
| | <쟁점 2> 성형 산업의 발달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 |
| | 성형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시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성형 수술도 또 하나의 한류이자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 성형 산업이 얼마나 외화벌이를 하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된다. |
| <쟁점 3> _____ | | |
|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데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게 마련이다. 성형 수술은 외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 아름다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데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은 획일화된 외적 아름다움만을 강요한다. 성형 수술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훼손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

2. 다음은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한 설명이다. 음절 구조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분절음이 음절을 구성할 때 작용하는 제약을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한다. 이 제약은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음절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우리말 음절의 초성에 /ㅇ(η)/이 올 수 없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 중 하나이다. 음절 구조 제약은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고유어뿐만 아니라 서양 외래어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 (1) ㄱ. 앞만, 부엌만, 발만, 넣는, 놓는, 붓는
 ㄴ. 앓다, 었다, 활다, 훑다, 읊다
- (2) ㄱ. 뭍도, 흙도, 값도, 읽다, 밟다
 ㄴ. 토스트(toast), 힌트(hint), 램프(lamp)

—<보 기>—

- 1. (1ㄱ)과 (1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음운 변동을 쓰고, 이 음운 변동에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서술할 것.
- 2. (2ㄱ)과 (2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서술할 것.

3. 다음은 ‘-롭-’ 파생 형용사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롭-’ 파생어의 특징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 (1) ㄱ. 보배롭다, 슬기롭다, 해롭다, 자유롭다, 명예롭다
 ㄴ. 새롭다
- (2) ㄱ. 受苦롭다, 외롭다, 義롭다, 효도롭다
 ㄴ. 지름듭다, 疑心듭다, 利益듭다, 주변듭다
- (3) ㄱ. 이 나래 새를 맛보고(此日嘗新)
 ㄴ. 네를 올마 새예 갈씨 일후미 새와 놀ᄃ니와 어즈러운 想이니

—<보 기>—

- 1. (1)에서 ‘-롭-’과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특징을 (2)의 ‘-롭-’과 ‘-듭-’의 분포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
- 2.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 (1ㄴ) ‘새롭다’의 어근이 갖는 특이점을 (1ㄱ)과 비교하여 지적하고, 중세 국어의 관점에서 ‘새롭다’의 단어 형성을 (3ㄱ)과 (3ㄴ)을 참고하여 설명할 것.

4. 다음은 시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간밤에 부든 비름에 ㉠ 눈서리 티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허물며 못다 뵈는 꽃이야 날너 무슴 흐리요
 - 유응부

천한(天寒)코 ㉡ 설심(雪深)흔 날에 님을 짜라 태산(泰山)으로 넘어갈 제
 갓 버셔 등에 지고 보션 버셔 품에 품고 신으란 버셔 손에 들고 천방지방(天方地方) 지방천방(地方天方) 흔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넘어가니
 보션 버스 발은 아니 스리되는 여러 번 넘핀 가슴이 산득산 득흔여라
 - 작자 미상

(나)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랫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랫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랫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랫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 눈사람이 되었네
 -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보 기>—

- 1. (가)의 ㉠, ㉡이 공통으로 상징하는 의미와 (나)의 ㉢이 상징하는 의미를 밝힐 것.
- 2. ㉠, ㉡을 관습적 상징, ㉢을 개인적 상징이라고 할 때, 개인적 상징과 구별되는 관습적 상징의 성격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